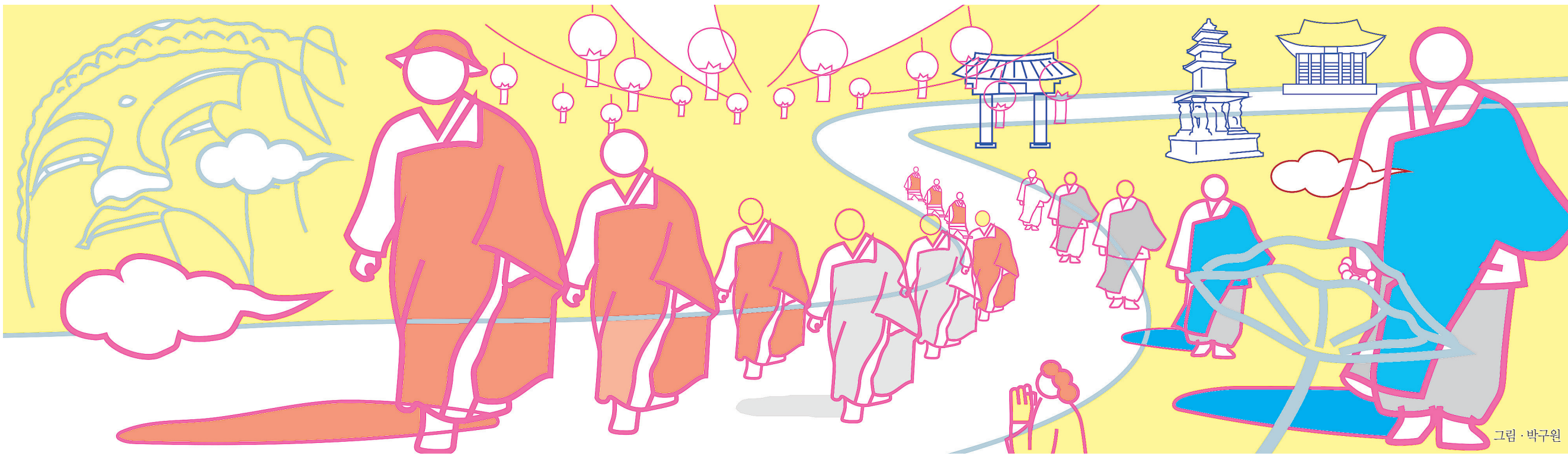




그림·박구원

“순례 신앙적 발걸음, 삼보 귀의부터 출발”

특별기고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사적 의미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시작되었다. 비구·비구니 55명, 우바새·우바이 42명 등 사부대중 총 97명이 공식 단원으로 참여하는 이번 걷기 순례는 일생을 걸으면서 중생을 제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게 한다. 불보종찰 통도사, 범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 등을 포함하는 삼보사찰 순례는 삼보에 대한 존중과 존귀함을 사부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지닌 의미는 결사에 동참하는 사부대중이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으로 불자를 포함해 우리사회 구성원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삶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직접 동참하는 사부대중이나 참여하지 못하지만 지켜보고 후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형, 무형의 종교적, 지적 자극을 동시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삶의 목표가 정해지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겨우 현실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해 자녀를 낳고, 직장생활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다. 이러한 경쟁적 삶의 일상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삭막한 현실을 떠나서 조용히 순례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생애 더없는 행복일 수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혼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과 내면의 대화를 할 수 있고, 도반들과 함께 가르침을 배우며 실천할 수 있고, 명상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순례길은 우리나라

의 삼보사찰을 잇는 걷기 명상 코스를 직접 답사하면서 추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직접 걸으며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삼보에 대한 믿음과 명상 수행, 그리고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순례는 신앙적 발걸음, 자기변화의 명상적 발걸음, 그리고 바라밀행의 실천적 발걸음 등 세 가지 발걸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순례의 신앙적 발걸음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종교적 순례가 일반 관광과 다른 점은 참여자의 신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불교는 삼보에 대한 귀의로 신앙심을 표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삼귀의는 불교의 모든 예경의식에서 빠짐없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는 부처님 재세 시부터 강조되어온 가르침이다. 〈쌍웃따니까야〉 ‘마하나마의 경(S55:37)’에서 마하나마는 “재가의 신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세존(世尊)께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한다”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부처님에 귀의한다는 것은 “세존께서는 거룩한 님, 올바른 원만한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길들이시는 님, 하늘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청정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설하였다. 이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여래심호로 관찰하고 자신도 이와 같은 공덕을 짓겠다는 서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가르침은 불자들이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와 신심을 형성하는 근본을 이루고 있다. 따

불교적인 순례코드 설정 개발이 필요

생의미 걸수 있는 순례길을 조성해야

순례 코스 구간별 스토리텔링 개발도

순례길 걸으며 수행하는 명상법 보급

라서 삼보사찰 순례는 초기불교부터 강조된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시에 전국의 불자들에게 삼귀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자기변화를 이끌어 내는 명상적 발걸음이 되는 것은 걷기명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걷기 명상은 부처님 재세 시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한 일반적인 수행법이다. 부처님은 매일 맨발로 걸어서 탁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법을 설하였다. 그리고 직제자들도 부처님이 계시던 죽림정사, 기원정사 등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개월씩 걸었다. 수행자들은 걸으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명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기 위해 몰두했다. 이러한 걷기 명상법은 남방 상좌부의 전통으로 이어졌으며, 현재도 수행자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앙가따라니까야〉 ‘마하나마의 경(A6:10)’에서는 “고귀한 제자가 경지를 얻고, 가르침을 인식하면, 어떤 명상을 자주 닦습니까?”라는 마하나마의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은 여섯 가지 관찰과 알아차림의 대상에 대하여 설하였다. 그것은 불, 법,

승, 지계, 보시, 천상 등에 대한 경지를 얻고, 가르침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구체적인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자리타의 보살행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보살도를 닦으시던 아래에서 중생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중생이 앓는 마음의 병을 알고, 그 병에 따라서 중생을 가르치며, 마음의 눈을 뜨게 하리라”는 원력을 실천하는 것과 같다.

순례 동참자들은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복전(福田)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삼보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고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례여행은 많은 길동무들과 만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매우 평화로운 포교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더욱 효과적인 포교방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종교적 사회적 의미를 갖춘 순례코스를 설정하고 개발하는 일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주길, 둘레길, 울레길, 바우길, 해솔길, 하늘길, 마실길, 역사길, 도성길 등 수많은 길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만 반짝 할 뿐 대부분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환경이 좋은 길을 걷기만 하는 것의 한계를 보여준다. 삼보사찰 순례코스는 송광사 해인사 불국사로 이어지는 지역에 다양한 사찰, 지역사회 문화공간, 역사성 등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순례코스에는 숙박시설, 화장실, 음료수 등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15일 이상 소요되는 순례길을 주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일반인들이 걷기 위해서는 하루길마다 충분한 시설이

있어야만 도전할 수 있다. 코스 구간별로 중간에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단순한 호기심의 일회성 순례가 아니라 생애 의미를 걸고 할 수 있는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스 구간별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다양한 이야기를 개발해야 한다. 순례길에서 삶의 교훈이 되고 신심이 증장될 수 있는 가르침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순례 자체가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코스 구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찰들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순례는 걷기 명상이며 자기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수행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흡법, 몸과 마음을 조율시키는 법, 마음을 관찰하고 마장을 극복하는 법, 현상을 관찰하는 법, 화두를 드는 법 등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책자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순례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중적인 명상법을 제공한다면 수행포교의 새로운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그 자체만으로도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뒤를 이어 체험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토대를 구축해 놓을 때 지속적인 포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같은 코스를 도는 순례팀을 결성하고 순례결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자들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한다면 지역사회 및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불교 포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임재부터 회향까지 장애없이 결집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기를 기원한다.

김용철 중앙승가대 교수



미리보는 삼보사찰, 함께가는 순례사찰

法寶宗刹 해인사

해인사는 고려 팔만대장경판이 봉안돼 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곳이라 하여 범보종찰로 불린다.

해인사는 802년 신라 애장왕 3년 순응과 이정 스님이 창건했는데, 이후 결연대대 스님이 창건을 계속하고 주지가 됐다. 935년 11월 신라가 망하자 경순왕의 막내아들 김덕지(金德孺) 왕자가 화엄종에 귀의, 범공 스님으로 범수사(法水寺)와 해인사(海印寺)에서 수행했다.

신라 말 승통 희랑 스님이 주지로 고려 왕조 건국에 일조하여, 태조 왕건이 국찰(國刹)로 삼고 전답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해인사는 화재로 인해 여러 번 중창됐는데, 현재 전각 대부분은 조선 시기의 것이다.

해인사의 핵심 전각은 국보 52호로 지정된 장경판전으로 13세기에 제작된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해 15세기경 건립됐다. 대장경뿐만 아니라 판전 또한 처음부터 대장경을 봉안하기 위한 전각으로 지어졌다. 판전은 창건 당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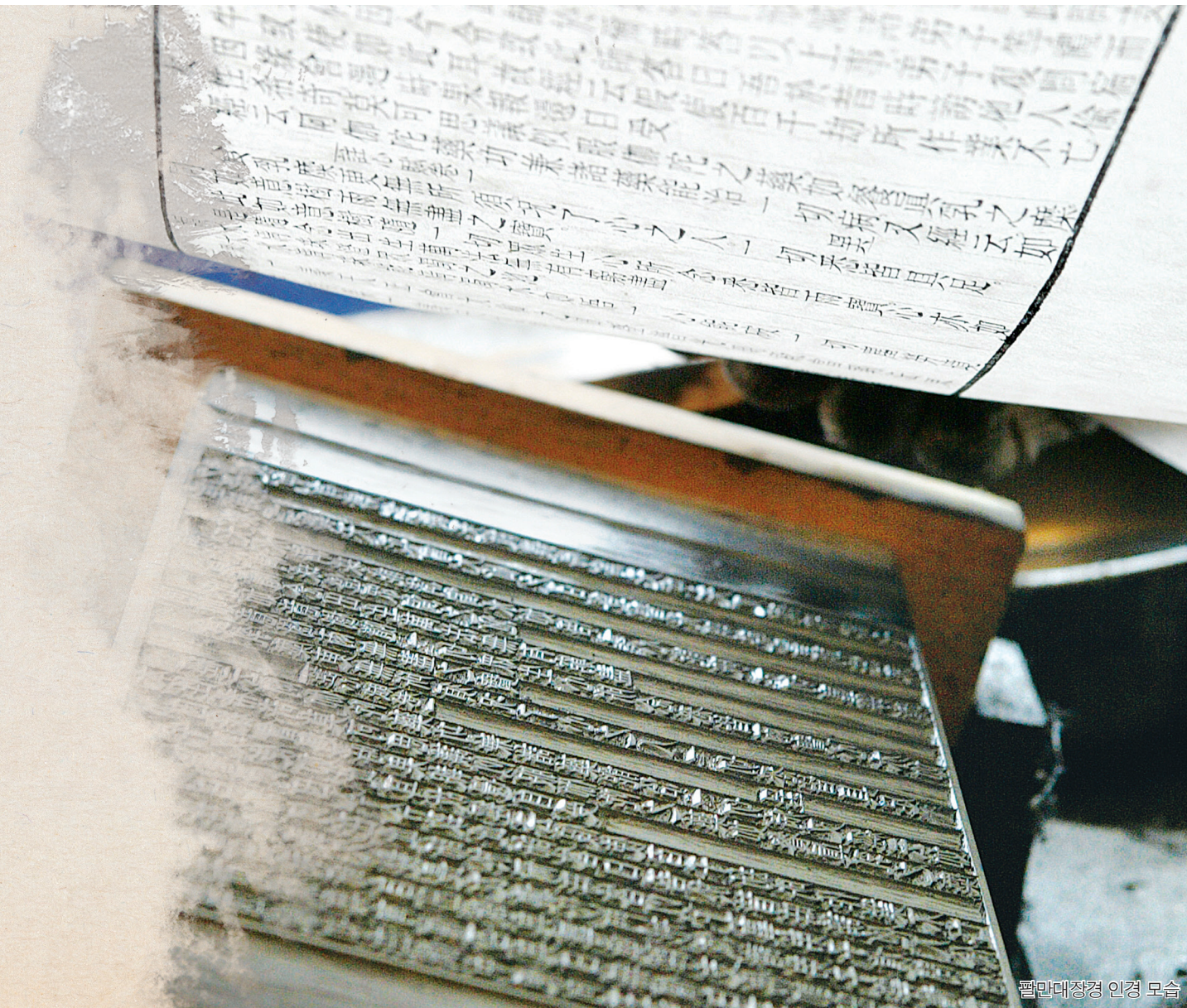
부처님 가피일까. 이 장경판전은 해인사에서 있었던 7번의 큰불과 한국전쟁 당시의 폭격 위기 등이 비껴갔다. 장경판전은 경판의 변형을 막기 위한 과학적 설계로 창고의 크기를 다르게 해 공기 순환을 돕고, 솟과 소금, 횃가루, 모래, 찰흙 등으로 지반을 다져 습기와 해충을 막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고려 현종 당시 초조대장경 목판을 교체하기 위해 새겨졌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모아 몽골과 거란족의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지키고자 했던 옛 선조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대장경은 남해서 제작된 뒤 1318년 강화 선원사로 옮겨졌다가 고려말 1398년 현재의 장경판전으로 옮겨졌다고 하며 이운은 왕이 직접 감독하여 한강에서부터 진행됐다고 한다.

장경판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며, 대장경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해인사는 올해 6월 19일부터 팔만대장경 국민개방을 하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대장경을 보고 선조들의 지혜를 얻고 화합하게 하는 국민사찰로 거듭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팔만대장경 인경 모습